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역사관

권태경(충신대학교 교수)

1.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개념

1970년대-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개념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유념해야 할 바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사상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 용어는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현상, 사회 이론적이고 자연 과학적 현상 그리고 신학적 현상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라틴어 접두사 '포스트(post)'와 근대를 의미하는 'modern'의 결합어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접두사 '포스트'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근대성에 대한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현대(성)' '탈근대' 또는 이성중심주의에서 확립한 진리와 의미 구조를 해체한다는 뜻에서 '해체주의', 구조주의와의 연관성 때문에 '후기구조주의(신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신승환, 2003).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며 그러한 현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모더니즘의 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부터 나타났다. 즉, 근대성이 포기되거나, 잊혀지거나 또는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처럼 기존의 것을 전면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극단적인 다원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급진적 상대주의로 나아갔다(마이런 B. 펜너 Myron B. Penner, 2013: 43, 김기봉, 2000: 167).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기독교 신앙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전근대주의와 근대주의를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객관적인 지식은 거부된다. 지식은 불확실하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설명 체계는 형이상학적이든 역사적이든 불가능하며, 이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포기되어야 한다. 지식의 본래적 선함 또한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진보가 거부된다. 이상적인 고립된 개인적 인식자라는 모델은 공동체에 근거한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탐구의 객관적인 방법을 집약한 과학적 방법도 의문시된다.” (밀라드 J. 에릭슨 Millard J. Erickson, 2012)라고 정의한다. 학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의 특성을 다원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포스트모던 역사 방법을 살펴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 방법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1) 진리의 절대성 거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으로 다원주의를 살펴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은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서로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목적이나 원칙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개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에 대한 낙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만큼 이성을 통한 하나의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체계의

형성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가치들과 목적을 인정하는 다원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성과 개체의 특성을 인정함으로써 모더니즘이 초래한 사고와 행동의 획일성과 체계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리처드 미들턴 J Richard Middleton·브라이언 왈시 Brian Walsh, 2007: 23; 김영한, 2009: 203).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의 독단성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나 절대적 진리를 아는 일에 이성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특히 무조건적인 다원성을 절대시하고 통일성이나 객관성을 무시하는 것은 상대주의를 초래한다(신국원, 2000: 237).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진리는 기준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모든 사물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유용한 것이고, 그것에 적합한 자에게만 효용이 있다는 것이다. 마실 것, 먹을 것, 약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용한 것은 아니다. 같은 음료, 같은 음식,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히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음식, 물건뿐만 아니라 선과 악 같은 진리의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총체적인 것에 선전 포고를 하고 역사에 대한 거대담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것보다는 국부적인 것, 총체적인 것보다는 파편적인 것, 거대한 것보다는 작은 것이 주체화된다(이상현, 2002: 23-24; 김영한, 2009: 203).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보편적 원리나 통일성이 없는 파편더미로 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이런 상대주의는 진리에 상대적 국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적 권위든지, 이성적 법칙이든지 절대성을 표방하는 것을 모두 배격한다. 상대주의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포스트모던적 상대주의는 상대성 자체를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시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특징이다(신국원, 2000: 238).

이러한 이성에 대한 불신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거쳐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회의주의로 귀결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세계를 꿈꾼다. 이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의 이성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 신처럼 받으러 온 근대에 대한 반발의 결과다. 그러나 이 세계는 유토피아(utopia)가 아닌 디스토피아(dystopia)다. 그 무엇도 문화의 기초 역할을 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상실되고 모든 것이 같은 가치를 누린다면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세계는, 규범과 토대를 상실한 무질서와 허무의 폐허 즉 디스토피아다. 초월적 진리와 이성의 합리성 그리고 인본주의적 가치를 모두 배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와 사회와 윤리의 기초를 정립하기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모든 체계를 폭력의 산물로 규정하고 해체를 지향하는 결과는 비판적 허무주의로 기울게 마련이다. 이런 사상은 종래에 절대성의 기초 노릇을 해 온 신이 죽었고, 근대인에게 신을 대신했던 이성도 죽었음을 선포한다. 그와 더불어 인간도 죽었다고 선언한다. 즉 신앙이나 합리성을 본질로 하는 인간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엘브레히트 벨머(Albrecht Wellmer)는 포스트모던이란 근대의 죽음이요, 신의 죽음 이후 새로운 추도사라 했다. 이것은 분명 허무주의다(신국원, 2000: 243-244).

2) 거대 담론 거부

근대는 과학주의와 이성주의에 기초하여 통일성과 획일성, 확실성의 사회를 지향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에서 시작되었고, 구조주의로 지지되었다. 구조주의는 전체 체계나 다른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개별적 사물의 의미가 규정된다고 보는 철학이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학에 기초한다. 소쉬르는 ‘랑그’와 ‘파롤’(langue and parole)로 언어를 설명한다. ‘랑그’는 언어활동의 사회적인 부분으로 말하는 사람 개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체계’이며, ‘파롤’은 랑그가 개

인에 따라 자유롭게 실현되는 '현상'이다. 소쉬르는 '랑그'와 '파롤'에 대한 소쉬르의 구분은 랑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랑그'는 '기호들의 체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호란 '개념'을 의미하는 '시니피에'(signifié)와 '청각 이미지'를 의미하는 '시니피양'(signifiant)의 결합이다. 언어 기호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시니피에'와 '시니피양' 사이의 결합은 자의적인 것이다. 즉 '시니피양'은 아무런 필연성 없이 하나의 '시니피에'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니피에와 시니피양의 결합을 통해 궁극적인 고정적 의미를 창출한다는 것이다(김종우, 2007; 김영한, 2009: 196).

하지만 포스트모던 대표적인 학자인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양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이 둘이 끊임없이 분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결합함을 주장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소쉬르의 언어학, 즉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차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차연'이란 신조어는 '차이'와 '연기'의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말한다. 그리하여 언어가 지닌 비결정적이고 비종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정승훈, 2001: 515; 김영한, 2009: 196). 즉, 어떤 단어는 그것이 아닌 다른 단어에 의해, 즉 단어들간의 차이에 따라 정의되고, 그러한 정의는 의미의 가능성에 한계를 가지게 한다. 그리고 의미의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어는 그와 다른 단어에 의해서만 정의되는데, 그 다른 단어 역시 또 그와 다른 단어로 이루어진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이런 식으로 끝이 없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언어의 비결정성과 텍스트 해석에서의 열려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그의 '해체주의' 사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텍스트에 대한 해체주의적 접근은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다. 첫째는 쓰인 내용 모두는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고 의도할 수도 없던 의미들을 전달할 것이다. 둘째는 저자는 자신이 처음에 의미했던 바를 말로써 적절하게 담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해석은 똑같이 타당성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텍스트 저자의 정체성과 의도와 텍스트의 해석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데리다의 해체 개념이다(Christopher Norris, 1955: 182-256; 김영한, 2009: 229-230에서 재인용). 데리다는 이러한 해체주의 사상을 텍스트에서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형이상학과 역사에까지 적용하며 기존의 철학과 세계관 등을 해체한다.

3. 포스트모던의 역사학의 성격

1) 해체주의

20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주의 역사이론이 역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헤겔로부터 시작하여 레오폴트 랑케(Leopold von Ranke)를 거쳐 최근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을 중심으로 하는 아날학파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역사학에서는 총체성이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비판의 강도와 역사 자료 안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현저히 증가했다((김영한, 1994: 681; H.버터필드 H. Butterfield, 주재용 역, 1984: 21).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이러한 전통적인 역사이론에 깊은 회의를 보인다. 특히 그는 자끄 데리다와 그의 이론을 문학에 도입한 미국 해체주의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19세기 유럽의 역사를 다루는 저서 《메타역사》(1973)에서 그는 한마디로 역사적 저술을 '서사적 산문 언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언어적 구성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역사는 "일정한 양의 자료, 이 자료를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 그리고 그 자료를 제시하는 서사적 구조"를 서로 결합하게 마련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책의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부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상력’이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그는 역사 기술을 문학이나 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화이트는 역사학의 대상은 ‘실재하는 과거’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 존재하는 ‘텍스트화된 과거’이며 텍스트로 존재하는 역사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라고 했다. 즉 역사 문서는 역사가들 자신의 서술과 다르지 않고, 역사가들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그 과거에 관하여 구성한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와 역사서술은 동일한 것이 된다. 그런데 언어 이론과 문예 비평 이론에 토대한 ‘언어로의 전환’에 의하면, 언어는 외부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로서의 역사를 추구한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과거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역사가들의 주장은 일종의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만이 존재할 뿐 궁극적인 역사적 실체는 없기 때문이다(아리프 딜릭, 황동연 역, 2005: 115-149; 이영호, 2012: 27에서 재인용). 역사 기술에서 사용하는 언어조차 비유와 수사성에 오염되어 있다고 화이트는 주장한다. 이렇게 언어가 수사성과 비유에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과 다름없다. 그리하여 화이트는 이러한 해체주의적 역사방법론에 따라 마르크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톰슨과 같은 서구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저서들을 해체시키고 있다(Hayden White, 1973; 김영한, 1994: 683).

한편 라카프라(Dominick LaCapra)에 의하면 《역사와 비평》(1985)에서 역사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매체로 삼고 있으며, 이렇게 언어를 매체로 삼고 있는 한 불가피하게 텍스트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과거는 텍스트와 텍스트화된 잔존물, 곧 회고록, 보고서, 출판된 저서, 기록 보관소, 기념물 등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른 저서에서도 역사는 텍스트 자체는 아니지만 텍스트적 형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한, 1994: 682) 포스트모던 역사 이론을 주창한 이들은 역사와 사회의 현실을 하나의 틀로서 일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그리고 역사를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로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비판한다. 대신 역사 현실의 다양성과 차별성,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지식의 모델과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거대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역사 서술을 거부했다. ‘과학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 서술의 수사학적인 전통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세계의 객관적 질서, 그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성과 질서의 상응을 전제로 하는 합리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해체이다(이영호, 2012: 25)

2) 신문화사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중요한 방법론 중이 하나는 신문화사적 역사해석이다. 이들에 의하면,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역사 방법론에서 다른 해석이 시도되었다. 즉 현실과 세계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게 파악되면 될수록, 종래의 거시적인 시각에 대한 회의는 점점 깊어갔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작은 것들 혹은 미시 세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관심이 증대하고, 이에 부응해서 과학과 세계관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김기봉, 2000: 190). 신문화사는 민중들의 소소한 문화들도 역사를 이끄는 힘이 있다고 보고 민중의 문화나 생활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고자 한다. 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신문화사라는 새로운 조류의 역사 서술은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을 굳이 분류하자면, 그것은 역사적인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 등의 방법에 의존하여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조한욱, 2000: 25).

‘두껍게 읽기’란 인문과학에서 글 읽기에 전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두꺼운 묘사(thick description)”라는 개념에 힘입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 속에는 많은 의미의 층위가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 접근할 때 인문과학에서는 사과 자체보다는 그것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를 다룬다. 예를 들면 트로이전쟁의 사과, 뉴턴의 사과, 빌헬름 텔의 사과와 같은 역사적 층위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사과가 파생시키는 의미의 연상 작용도 있을 것이다. 외형적으로 사과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은 같을지라도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 두꺼운 의미의 층위를 뚫기 위해서는 상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두껍게 읽은 역사적 자료는 역사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확인하려던 종래의 과학적 역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조한욱, 2000: 16-17; 권태경 편, 2014: 193-194).

‘다르게 읽기’란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역사를 보는 관점과는 다른 맥락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역사학은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다. 승리자 중심으로 역사의 서술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으로서, 역사학이 체제를 미화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이미 깊게 뿌리박혀 있어 사람들은 기존의 역사 서술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르게 읽기’란 이런 관행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패배자의 지평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며 그 서술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사가 새로운 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자연을 무대의 전면으로 내세운 ‘다르게 읽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르게 읽기’는 우리를 타자의 입장에 놓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조한욱, 2000: 68).

‘다르게 읽기’란 지금까지 역사를 지배해왔던 ‘큰 사람들’에서 벗어나, 박해받고 소외되었던 ‘작은 사람들’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 즉 ‘작은 것을 통해 읽기’나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수탈과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들에게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들에 대한 기록 역시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작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는 그 빈약한 자료를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발명해내야만 했다. 미시사라고 불리는 ‘작은 것을 통해 읽기’는(조한욱, 2000: 16-17; 권태경 편, 2014: 194) 고급 문화에 가려져왔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와 아날학파의 거시적이고 비인격적인 설명의 틀속에 잊혀졌던 인간 개개인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했으며, 소외된 사람들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정당한 몫을 찾아주려는 시도며(조한욱, 2000: 91), 역사현실의 소우주를 발견함으로써 역사의 작은 것들에 대한 재평가다(김기봉, 2000: 190).

새로운 신문화사적 해석은 결국 역사 해석에 있어서 ‘두껍게 읽기’와 ‘다르게 읽기’와 ‘작은 것을 통해 읽기’는 결국 ‘깨뜨리기’로 통합된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역사학이 유지해왔던 역사의 이해와 서술방식을 해체시키는 작업이다. ‘두껍게 읽기’는 역사적 진술이 완결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단지 해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역사학은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랑케 이후로 지켜져 내려오는 믿음을 깨뜨렸다. ‘다르게 읽기’는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당연하게 간주되어오

던 역사 서술의 중심점을 깨뜨렸다.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역시 역사학의 서술 대상이나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깨뜨리며 양적으로 빈곤한 사료가 어찌면 과거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를 알기 위한 더 풍요로운 보고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것은 우리가 비판의 정신을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정형화된 틀을 깨뜨리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단지 파괴를 하기 위한 깨뜨림이 아니라 그 정형화된 틀을 새로운 방식으로 성찰하여 더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주장이다(조한욱, 2000: 103, 16-17; 권태경 편, 2014: 195).

앞에서 살펴본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관(신문화사)는 전통적인 역사관을 거부하고 역사의 내면과 미시적이고 다양한 역사해석을 추구하는 점에서 역사 방법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 방법론은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신적 질서가 없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끊임 없는 방향과 자기오류의 길을 밟고 만든다. 이러한 해체적 세계상은 바로 인간의 자기 상실의 세계상이요, 오늘날 참 신을 떠나 방황하는 포스트모던의 정신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준다(김영한, 2009: 236-237).

4. 기독교 사관에서 본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 역사 방법론은 역사 해석의 통일성을 거부하고 주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 역사 방법론이다. 반면에 기독교 사관은 구속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적 사관이라는 세 가지 전제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구속사관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을 말하며, 섭리사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즉 역사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한다는 점이다(이상규, 1994; 권태경, 2001: 23). 이처럼 기독교사관은 하나님에 의해 역사가 진행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역사의 방향성과 목적을 직선론적이고 구속사적으로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거대 담론’의 거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거부와 초월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세속적인 역사관을 형성하였다. (제임스 사이어, 김현수 역, 1985: 58; 이장식, 1992: 10; 권태경 편, 2014: 109).

기독교 사관은 역사를 자연 법칙이나 인과법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를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 본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부인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의 역사 이해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개입하는 것을 진정한 역사로 본다. 이러한 점이 포스트모던 역사 방법론과 분명히 다른 면이다. 역사속에서 한 사회나 문화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이 사라지면 상대주의가 팽배해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다원성, 유동성, 상대성의 역사 해석은 역시 이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주의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역사 해석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의미만을 내세우는 자기 모순된 방향성은 거부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던적인 역사학의 방법론 중의 하나인 해체주의와 신문화사적인 역사 해석은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방법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역사해석의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방법론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드러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권태경 편, 2014: 199-200, 202).

기독교 사관은 역사의 목적과 방향성이 없는 포스트모던적 역사 방법을 거부한다. 포스트모던 역사관은 문화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데, 기독교사관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며 동시에 일정한 목적

과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본다. 즉 모든 역사의 원인이 하나님이며, 그분에 의하여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한편 포스트모던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는 기독교적 사관에서 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필자가 볼때 역사는 포스트모던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망과 허무가 아니라, 구속사와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성취되는 희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과 비판의 태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하나의 세속 문화로 단정하여 무조건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적 태도를 경계한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창조적인 문화 변혁의 수단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독교	이슬람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우주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근원	성경	코란, 하디스	인본주의 선언문 I II III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	스팽글러, 맥레인,	니체, 푸코, 데리다, 로티
이론	유신론 (삼위일체)	유신론 (단신론)	무신론	무신론	범신론	무신론
역사관	창조, 타락, 구속	역사적 결정론 (지하드)	역사적 진보주의	역사적 유물론	진화적 신성	역사주의

<표1> 기독교와 다른 세계관들과의 차이 비교표(권태경 편, 2014: 204)

	기독교	이슬람 신학	(세속적) 인본주의 신학	마르크스 신학	뉴에이즈(우주적 인본주의) 신학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근원	성경	코란, 하디스	인본주의 선언문 I II III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팽글러, 맥레인,	니체, 푸코, 데리다, 로티
신론	유신론 (삼위일체)	유신론(단신론)	무신론	무신론	범신론	무신론
생물학	창조론	창조론	신 다윈주의 진화론	결정적 진화론	우주적 진화론	결정적 진화론
인간론	심신 이원론 (타락)	심신 이원론 (타락하지 않음)	일원론 (자아실현)	일원론 (행동주의)	고등의식	사회적-구조적 자아들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구속의 완성	선을 쌓아 심판의 날로부터 구원성취	인간 스스로의 구원성취	유물론을 통한 유토피아의 완성	모든 것이 하나이며 신이라는 것을 인식함을 통해 구원성취	절대적 진리의 파괴와 이로 인한 참 자유를 누림

<표2> 기독교와 다른 신학들과의 차이 비교표(권태경 편, 2014: 98)

참고문헌

- Gene Veith, Jr, 홍치모역(2004)『포스트모더니즘 세계.도전받는 크리스찬』 서울:아가페문화사
- H.버터필드, 주재용 역 (1984) 『기독교와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 제임스 사이어, 김현수 역 (198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리처드 에번스, 이영석 역 (1999). 『역사학을 위한 변론』.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 리처드 미들턴·브라이언 왈시, 김기현·신광은역(2007) 『포스트모던시대의기독교세계관』 살림
- 로널드 웰즈, 한인철 옮김 (1955)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 IVP
- 마이런 펜너, 한상화 역(2013) 『기독교와 포스트모던 전환:6가지견해』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 밀라드 J. 에릭슨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CLC
- 권태경 (2001) 『대학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 _____ 편저 (2014) 『그리스도인의 세상 바로보기 신학·역사학』. 서울: (주)디씨디와이북스
- 김기봉 (2000)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도서출판 푸른 역사.
- 김영한 (2009)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4) 『서양의 지적 운동 I』. (주)지식산업사
- 김종우 (2007) 『구조주의와 그 이후』 (주)살림출판사
- 신국원 (2000) 『포스트모더니즘:』 IVP
- 신승환 (200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주) 살림출판사.
- 이상현 (2002) 『역사적 상대주의-미국 신사학과를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 이영호 (2012) 『역사교육탐구』.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이장식, (1992) 『기독교사관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정승훈 (2001), 『종교개혁과 21세기-어거스틴과 포스트모던 사이에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조한욱, (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